

과학과 철학 그리고 언어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현대철학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철학에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러한 점은 플라톤의 ‘소피스트’ 이래로 베이컨과 흄을 거치는 동안 항상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언어는 철학을 하는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논리학이 발전하여 언어적 표현을 명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과학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철학이 개념적인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셋째, 존재와 사유의 영역에서 언어의 역할이 의외로 심대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적 전환’이나 ‘인식론적 전환’과 비교하여 ‘의미론적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철학의 획기적 사건 ‘언어적 전환’

피상적으로 보기에 언어적 전환은 오늘날 철학을 왜소하게 보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진리의 탐구대신 의미의 명료화이나 엄매이고 있는 듯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령, 스티븐 호킹은 그의 ‘시간의 역사’에서 “뉴턴 시대에는 교양 있는 사람이 인간지식의 전체를 적어도 윤곽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과학의 급속한 발달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19세기와 20세기에 과학은 몇몇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철학자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기술적이고 수학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철학자들은 질문의 범위를 너무 좁혀 버린 결과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남겨진 일이 있다면 언어의 분석뿐’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에 이르는 철학의 위대한 전통이 이렇게 몰락하다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어적 전환을 주도해 온 철학자들이 ‘철학은 곧 언어비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된 것이 현대 과학이 너무 전문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논리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표현상의 문법적 주어와 실재를 지칭하는 논리적 주어를 혼동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너무 사변적인 논쟁에 휩쓸려 버린 경향을 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말하자면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진리의 탐구에 임하기 전에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된 것이다.

로티, “과학도 언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런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철학에서의 이 언어적 전환이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과학을 무엇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임에 틀림없으며, 그 탐구의 결과는 반드시 언어적 표현을 빌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학도 언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철학자로 우리는 로티를 들 수 있다. 그는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진리는 저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즉 인간정신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문장들이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저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저 바깥에 존재하지만 세계에 대한 서술은 그렇지 않다. 세계에 대한 서술들만이 참이나 거짓이다. 따라서 인간의 서술 활동의 도움을 받지 않는 세계 그 자체는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과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학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학에 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물리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정밀한 서술을 탐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잘 설명할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발전하는 학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로티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는 ‘글쓰기로서의 철학 : 테리다에 관한 에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물리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정상과학의 진부한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모델, 새로운 그림, 새로운 어휘를 생각해 내며, 그리고 나서 그 책의 참된 의미가 발견되었다고 공표한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나 알렉산더 포프의 ‘둔시아드’ 혹은 헤겔의 ‘정신 현상학’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등의 참된 의미가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물리학자이게 하는 것은 모든 저술이 얼마간은 ‘동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즉 그 저술들의 자연이란 책에 대한 앞선 해석자들의 저술에 관한 주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 이론의 언어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지만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에 관한 입장을 반영시킨 견해이기도 하다.

과학의 언어적 측면 지나치면 시와 구별 모호

인간의 언어활동을 중요시하고 과학이론의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적 전환에 심취한 철학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브로노프스키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과학은 ‘공학적 설계도’가 아닌 ‘자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언어’에 불과하다. 그는 로티와 유사하게 과학자는 우리가 보

는 자연을 ‘과학 용어’로 표현하고 이 용어들도 또 한 번 동일한 현상이 목격되었을 때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학의 애매모호함을 모른 척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의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고 인간의 언어활동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때 전통적인 과학관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과학은 일종의 문예활동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적어도 과학과 시의 구별이 애매해질 뿐 아니라 과학적 가설의 설정에 있어서 상상의 측면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이다.

브로노프스키는 그의 ‘개마고원’에서 인간의 특성을 언어적 능력에서 찾으며 이렇게 주장한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이 주어졌다는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고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질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의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듯하고 그 현상을 통합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표현하는 관념들을 창조한다. 이와 같은 관념의 창조와 언어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도 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상 활동이다.”

과학에서의 언어적 표현은 세계에 관한 서술

과학이 인간의 지적활동인 이상 언어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동안 지적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학에서의 언어적 표현은 비록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겠지만 세계에 관한 서술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입되는 상상력도 어디까지나 ‘과학자’의 상상력이자 시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뉴턴이 강조했듯이 “과학자는 가설을 만들지는 않음”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피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사고가 언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사고의 내용이 언어에 국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